

“광주 군 공항 이전 국방부가 나서야”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들 정경두 국방장관 만나 요청 시민추진협 “군공항 이전 안되면 민간공항도 이전 말아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지역 정치권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오랜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여기에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정치권과 국방부, 광주·전남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형배·윤영덕·이용빈·조오섭 당선인은 전날 국방부에서 정경두 장관을 만나 군 공항 문제 해결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당선인들은 정 장관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국방부가 아직 예비이전 후보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국가사업이므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가 이전 대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조기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시민들이 결성한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조속한 후보지 선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민간공항도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에 대해 군 공항이 전남으로 이

전할 수 없다면 광주 민간공항도 무안으로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협의회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방부 장관, 광주시장·전남지사에게 다음 달 30일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팀은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개의 실무지원단을

전담팀에 두고 관련 회의를 매월 진행한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이전 지역에 15.3km²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신 8.2km² 규모 현 공항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예비 이전 후보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군공항 이전 계획 조속 발표하라”

광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2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군공항 이전 추진 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사업 착공식이 28일 오후 광주 남구 양과동 부지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공사의 시작을 알리며 시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에 명품 수목원 조성된다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주변 430억 들여 내년까지 완공

남도의 멋과 무등의 사계 등을 담은 명품 수목원이 광주에 조성된다.

광주시는 28일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 주변 부지에서 시립 수목원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립수목원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30억원, 시비 400억원 총 430억원을 투입해 24만6948㎡(7만4701평)규모로 조성된다.

수목원 공간은 환영의 숲, 무등산 사계 숲, 미래건강 숲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환영의 숲에는 방문자센터, 전시 온실, 전통정원 등을 배치해 남도의 멋을 살피도록 한다.

무등산 사계 숲에는 무등산을 상징하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을 형상화한 잔디마당과 남도 테마정원을 배치한다.

향기, 자생, 약용 식물원을 구성해 지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미래건강 숲에는 식물 유전자 보호를 위해 종다양성 연구원, 유전자 재배원, 묘포장 등이 들어선다.

시립수목원은 지난 2009년 조성 결정 후 11년 만에 착공하게 됐다.

사업비 때문에 2014년 현 계획 규모로 줄었으며, 2018년 9월 문화재 시굴 조사와 지난해 국토부 사업인정 고사·토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내 수목원이 64개인데도 국공립 수목원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안전, 환경, 생태가 중요한 가치가 된 만큼 시립수목원이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 치유, 회복,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양항·목포항 활성화되나

해수부 장관, 김영록 지사 면담서 현안사업 국고 지원 의사 밝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목포항 국제 카페리부두 건설에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문성혁 해수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문 장관과의 면담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양항 활성화 기반 구축’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목포항 국제카페리부두 건설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 일원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목포항 국제카페리부두 건설 사업은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을 갖고 “올해 저온 현상으로 피해가 큰 과수농가 등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하향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지난해 이전으로 상향해 원상복구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립 축산 창업교육기관 건립 사업 ▲오리축사 깔짚 관리용 자율

주행 로봇개발 사업 ▲스마트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구축 등 6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학 영농 실현을 위한 스마트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다른 건의 사업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의 면담에서는 ‘오랜 숙원인 마한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마한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고분 등 유적발굴, 정비 및 사적 지정 사업비 120여 억의 국비 지원해달라”를 요청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도 ‘바다의 날’ 해양쓰레기 정화 구슬땀

전남도와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이하 한수협)는 지난 27일 ‘제25회 바다의 날’을 맞아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데다 늘어난 해양쓰레기로 이종고를 겪고 있어 어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신의준·이광일 전남도의원, 최동익 한수협회장, 김동수 한수협완도군회장을 비롯한 수산업경영인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소안면 당사도 해안가에 유입된 페어망을 비롯 스티로폼 부표, 양식 기자재 등 40여을 수거, 어선 9척과 해양환경공단 정황선 1척을 동원해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처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19 출동차량 실시간 위치 알려준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다음달부터 ‘알리미’ 서비스

다음달부터 119 신고 후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6월부터 119신고 후 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119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재나 사고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의 스마트폰에 출동 문자를 보내고, 모바일 웹페이지 정보를 클릭하면 소방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도착예정시간 등을 알려준다.

이는 별도의 앱(APP)을 설치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신고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맞춤형 119서비스다.

시험운영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한 광산구 수암동 B씨(59)는 “예전에는 119신고 후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1분1초가 한 시간 같고, 초조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휴대폰으로 구급차 출동 서비스를 받아보니 조금 더 안정감이 들고 차분하게 준비할 수가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민철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맞춰 소방정보화 분야도 빠른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Sunshine GWANGYANG

아이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행복도시 광양

광양시